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답사

존경하는 키르츠네르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에 대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빛나는 역사와 수준 높은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각하께서 취임한 지난해 아르헨티나 경제는 8% 이상 성장하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추진해 온 빈곤타파와 부패적결, 과거사 청산 등의 개혁정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남미대륙의 역내 통합을 선도하는 가운데 아시아·유럽 국가들과도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아르헨티나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하께서 즐겨하셨던 농구와 축구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승한 데 대해서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동북아는 세계 GDP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남미 또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이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지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의 장점을 살려 간다면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원합니다. 교역 위주의 일회적인 교류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상호협력의 수준을 높여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경제·통상, 자원,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한국부터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이면 이주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민 1만 5천여명도 양국관계 발전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서울에서 각하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울도 부에노스아이레스만큼 아름답고 시민들은 활기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남을 위해 박수 한 번 청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아르헨티나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양국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